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교육과 수유상황을 중심으로—

조 결 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목 차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에 대한 영아의 행동특성
 - 2. 영아에 대한 부모의 행동특성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자료수집 및 분석
 - 3. 연구도구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 2.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 3. 대상자의 특성과 모아상호작용과의 관계
- V. 결 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상호작용이란 교호작용(Reciprocity)이란 말과도 함께 쓰면서 이는 2개 혹은 그 이상의 사물과 현상이 서로 작용하여 원인이 되며 결과가 되는 일이라고 한국어 대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모아상호작용은 엄마와 애기가 서로 자극을 주고 받으며, 서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계를 형

성한다.

모아상호작용 이론은 근본적으로 영아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아가 능동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출생당시부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Tulman, 1981).

그 능력으로서 생물적인 자극이 돌보는 이에게서 근원이 된다고 해도 부모와 애기 사이의 상호작용은 일방향이 아니었다. 애기는 제공되고 행해진 것에 대해 반응하고 그 반응은 부모가 앞으로 애기에게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하며 애기는 돌봄과 관심 등을 요구하므로서 상호작용을 주도한다.

영아기 경험은 전적으로 엄마가 제공해 주는 돌봄의 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영아를 돌보아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그것은 영아기 초기에 중요한 근육운동과 감각적 자극의 부족,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환경결여 및 영아에게 신뢰감을 형성해 줄 수 있는 반응 등의 부족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Wachs와 Gruen (1984)은 영아의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영아에게 단순한 자극이나 반응을 보여 주는 일상적인 환경제공만이 아닌 효과적인 환경의 제공 즉 영아의 상태 및 능력에 맞는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줌으로서 영아가 자신에게 제공된 자극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돌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영아는 그의 엄마로부터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얼굴 표정 그리고 몸 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기도 한다(Thomas & Chess(1977)).

모아상호작용의 주요기능은 행동의 상호교류를 통해 엄마가 영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영아가 정보를 받으므로써 그의 인지적·사회적 발달을 결정해 준다. 즉 영아기의 초기인 생후 1~3개월 시 시각적 상호작용, 사회적 놀이, 애정이 깊게 안아주기, 혹은 쓰다듬어주기 그리고 영아의 발성이나 안달거리는 울음에 부수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준 엄마의 영아는 그렇지 않은 엄마의 영아에서보다 생후 9개월과 2년에 측정된 인지적 능력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Green, Gustafson & West 1980).

Freud(1938)는 모아관계를 아동에게 사회적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서 아동의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Harris(1989) 등은 모아상호작용이 안정된 영아에서 소아과 이용율이 적었음을 보고하면서 일찌기 상호작용을 인식하여 소아과적인 환경에서 포괄적인 사정과 예방적인 중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언급했다.

Sarale(1978)은 돌보는 이가 상호작용 행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아동들은 언어능력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엄마의 능력증가는 영아의 사회적 행동에 반응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그래서 생후 6개월 이후 동안에 모아상호작용은 내용과 구조면에서 아주 다르게 된다. 그리고 생후 8개월에 영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반응으로 더욱 직접적인 것을 보여 주었으며 운동성이 증가되었고 상호작용하는 영아는 다른 형태의 모성적인 기술을 요구한다고 하였다(Mercer 1986). 생후 7~9개월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경험을 자기 주도적인 활동으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은 영아가 주도한 활동을 기초로 한 환경과 엄마와의 상호작용의 기간이다. 독립감과 움직임이 증가하므로 주위에 있는 물건들과 사람들을 조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아는 수유를 통해 언어적으로 시각적으로 상호작용을 주도하면서 점차 각성(alerting)되고 더욱 활동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놀이나 교

육시에도 주도적으로 교육재료를 만지고 조작하려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에 엄마의 행위에서는 언어적이고 운동성이며 접촉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은 줄어들는데 이것은 엄마가 영아의 독립과 스스로를 돕는 기술과 탐색행동을 격려함이며 영아로부터의 신호(cue)를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Sander 1964).

수유는 모아관계의 최초의 연결과업이며 그 관계를 발달시키는 상호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상호적인 관계를 관찰하기 위한 우수한 매개체이며 상호적인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우수한 매개체이다(Green, Gustafson & West 1980).

교육과 수유상황은 모아간의 특이한 관계를 잘 말해주고 교육상황이 인위적이라고 해도 자기 스타일을 갑자기 바꾸지 못하므로 두 사람간의 관계 파악을 용이하게 해준다.

모아의 상호관계를 보기 위한 연구는 최근의 우리나라에서와 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도구도 여러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수유나 놀이를 통해 관찰, 평가하는 방법들이 이용되며 대상아동도 생후 1~3개월 이내의 영아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Barnard(1978)의 교육 및 수유상황에서의 관찰연구가 시도된 바 없고 또한 6개월 이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거의 시도된 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생후 9개월된 영아와 그의 엄마를 중심으로 교육상황과 수유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서 간호사로 하여금 엄마의 영아에 대한 민감성과 불편감에 대한 반응 및 사회,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양육행위와 영아의 엄마에 대한 신호의 명확성과 부모에 대한 반응을 사정하여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모아의 교육상황과 수유상황을 의미있게 발전시키고 상호작용의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어떤 부모도 영아가 외부 세계에 반응하려고 하는 가꿀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력하고 의존적이며 미숙한 영아로 판단

하여 적절한 자극을 주는 학습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자극이 없는 환경을 주려고 계획하지도 않는다.

어떤 부모는 애기의 능력과 발육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를 놓친다(Snyder, Tyres & Barnard, 1979). 그러므로 애기측과 엄마측의 자극능력과 반응능력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부모에 대한 영아의 행동특성

1)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

모아상호작용은 영아가 자신을 돌보는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고 엄마는 영아가 보내오는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여 상호교환하며 동시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두 관계는 발달되어 간다.

동시적인 관계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아는 그를 돌보는 이에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 신호는 부모가 읽기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애기가 보내는 신호가 모호하거나 혼동될 때는 돌보는 이의 적응행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Barnard, 1978).

영아는 수면, 짜증, 각성, 배고픔, 만족 등 많은 종류의 신호를 보내고 몸의 움직임을 변화한다.

2) 돌보는 이에 대한 영아의 반응

부모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애기가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아는 그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신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돌보는 이의 행동신호에 반응하지 못하면 적응은 불가능하다. 상호과정에는 엄마와 영아가 서로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 표현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상호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Martin과 Gray(1978)에 의한 정상아와 미숙아의 비교연구에서 생후 1개월과 4개월의 미숙아군은 덜 각성되어 있고, 덜 반응적이었으나 엄마의 반응은 차이 없었다. 그러나 생후 8개월과 12개월의 미숙아군은 정상아군과 차이 없게 되었지만 미숙아 엄마군이 덜 반응적이 되었다. 이에 대해 Barnard(1978)는 미숙아군의 계속적인 반응결여가 엄마를 민감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했다.

2. 영아에 대한 부모의 행동특성

1. 영아의 신호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

모아상호작용 유지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영아의 주의집중을 위한 엄마의 능력과 후퇴를 위한 욕구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을 발달시키는 것이다(Brazelton, et al(1974)). 만일 부모가 그들의 행동을 적절히 수정하려면 부모도 영아에 의해 주어 진 신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민감성은 영아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신호에 관한 특별한 정보를 부모에게 주므로써 증진될 수 있는 학습된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민감성에 관해 다른 영향인자들이 있다. 즉 직업적인 문제, 경제문제, 정서적문제, 부부간의 스트레스와 같은 삶의 어떤 면에 관심이 더 많은 부모는 민감해질 수 없다. 어떤 부모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감소될 때에만 아이의 신호를 읽을 수 있다.

2) 영아의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부모의 능력

영아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를 보낸다. 영아는 자신의 기저귀를 바꿀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으며 단지 기저귀나 젖병을 달라고 울음으로 신호한다. 영아의 괴로움을 경감시키는 부모의 효과로는 몇가지 요인에 의해 다르게 된다. 즉 첫째, 부모는 영아에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다. 둘째, 괴로움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알고 있는 정도이다(예로서 자세 변화시키기, 먹이기, 흔들어 주기 등).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서 심각한 사회적 긴장하에 있는 가족은 영아의 괴로움을 만족스럽게 다룰 충분한 시간과 정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부모가 괴로움의 신호(울기, 짜증내기)에 빨리 적응할 수록 영아는 빨리 조용해지거나 편안해 한다.

3) 사회, 정서적 및 인지적 발달을 위한 양육 활동

위에서 언급했던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영아의 괴로움의 경감에 대한 적응행동은 비교적 범위가 좁다. 그러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양육을 시도하는 능력은 부모의 보다 광범위한 적응에 달려 있다. 부모는 애정을 가지고 아이와 놀이할 필요가 있고, 먹는 일과 관련된 것 같은 사

회적 상호관계에 참여하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사회적 강화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의 발달수준을 알아야 하고 부모의 행동은 그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아동의 현재의 수준 바로 위에 자극을 주므로서 인지적 성장은 용이해 진다. 영아의 사회, 정서적, 인지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능력은 부모가 갖은 유용한 에너지 즉 그의 지식과 기술에 많이 달려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시내의 3개 대학병원에서 임신이나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이 만삭으로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로 분만한 건강한 초산모와 그의 생후 9개월 된 영아 3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영아들을 성별로 보면 남아 12명, 여아 18명이었고, 엄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7명이었으며, 분만형태별로 보면 자연분만 23명, 제왕절개 7명이었고, 아버지의 학력분포는 고졸 12명, 대졸이상 18명이었으며 어머니의 학력 분포는 고졸 16명, 대졸이상 14명이었다. 어머니의 연령분포는 25세에서 38세 까지이고 평균 27세이었다.

과반수가 고형식을 먹고, 과반수 이상이 정규수유시간으로서 대부분이 10분 이내의 수유시간을 갖었다(86.7%). 또한 3분 정도의 교육시간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6.4%).

2. 자료수집 및 분석

1989년 8월 27일부터 1990년 2월 26일 까지 6개월간에 걸쳐 대상자 30명 중 13명은 병원 의무기록지의 산과력을 참고하여 각 가정에 전화통화한 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허락한 경우에 가정방문 일시를 약속하고 찾아가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나머지 17명은 이미 다른 목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던 자 중 본 연구의 참여를 허락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역시 가정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보조원 1인으로 하여금 수유상황과 교육상

황을 비디오 촬영과 동시에 녹음케 하고 연구자는 그 상황을 관찰하였으며 후에 녹화된 VTR을 재분석 및 평점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	%
성 별	남	12	40.0
	여	18	60.0
직 업 (업 마)	유	7	23.3
	무	23	76.7
분 만 형 태	자연분만	23	76.7
	제왕절개	7	23.3
학 력 (아 버 지)	고 졸	12	40.0
	대졸이상	18	60.0
학 력 (업 마)	고 졸	16	53.3
	대졸 이상	14	46.7
연 령 (업 마)	25—27	16	53.3
	28—30	9	30.2
	31—33	4	13.2
	34—38	1	3.3
수 유 형 태	모 유	1	3.3
	인공유	13	43.3
	고형식	15	50.0
	모유+인공유	1	3.3
수 유 시 간	10분	26	86.7
	10—20분	4	13.4
정규 수유시간	예	16	53.4
	아니오	14	46.6
교육 시 간 (분)	3	14	46.6
	4	2	6.7
	5	10	33.3
	6	4	13.4
합 계		30	100.0

어머니에게 수유시간과 교육시간은 제한을 주지 않았으며 교육은 연령에 맞는 과업을 교육시키도록 요청하였다. 관찰을 위하여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였다.

연구자는 미국 Washington 대학의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NCAST) 훈련과정

을 이수하여 본 연구에 이용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였다(1988. 1. 22 획득).

수집된 자료는 spss package를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모아의 인구학적 특성은 백분율로, 수유상황과 교육상황에서의 엄마의 행동과 영아의 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또한 수유상황과 교육상황에서 영아의 성별 아버지의 학력별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별로 엄마와 영아의 행동을 t-검정하여 각각 그 차이를 보았다.

3. 연구도구

Kathryn Barnard의 Nursing Child Assessment Project Research(NCAP)에 의해 개발된 Nursing Child Assessment Feeding Scale(NCAFS)과 Nursing Child Assessment Teaching Scale(NCATS)를 이용하였다.

NCAFS와 NCATS는 수유와 교육상황에서 부모와 영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로 후에 아동의 발달과 관련됨을 발견하게 되었다(Barnard 1978). 이 도구는 이분문항(예, 아니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에 답한 점수를 하위영역별로 합하여 모아 양자의 행위정도를 측정한다. 이분문항의 도구이므로 일단 관찰하고자 하는 사항을 발견하기만 하면 평가가 매우 쉬운 장점이 있다.

NCAFS는 출생부터 생후 1년 까지의 영아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총 76문항으로 부모의 행동에 관한 문항이 50이고 영아의 행동에 관한 문항이 26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NCATS는 출생부터 생후 3세 까지의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총 73 문항으로 부모의 행동에 관한 문항이 50이고, 아동의 행동에 관한 문항이 23 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이다.

위의 2도구 모두 부모의 행동에 대한 내용은 4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영아의 신호(cue)에 대한 민감성」(NCAFS=16문항, NCATS=11문항), 「영아의 피로움에 대한 반응」(NCAFS=11문항, NCATS=11문항),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NCAFS=14문항, NCATS=11문항),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NCAFS=9문항, NCATS=17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영아의 행동에

대한 내용은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NCAFS=15문항, NCATS=10문항)과 「부모에 대한 반응」(NCAFS=11문항, NCATS=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결과해석은 응답한 '예'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의 상호작용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 준다. 각 영역별로 합계 점수를 비교하고 엄마와 영아별로 총점을 살펴본다.

도구의 내적 일관성은 .73—.85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이었으며(이상 NCAP 결과), 본 연구에서 수유도구인 NCAFS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9이었고, 교육도구인 NCATS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8이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모아의 상호작용을 보는 시작은 여러면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용된 연구도구는 새로운 도구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 및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헌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해석보다는 연구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에 초점을 두어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과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표 2>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엄마의 총점은 40.2(만점 50점)를 보였고, 이를 다시 하위영역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평균 9.1점으로 최저 5점에서 부터 만점 11점의 범위였고, 「피로움에 대한 반응」은 평균 10.0으로 최저 5점에서 최고 11점까지의 범위였으며,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양육」은 최저 5점에서 부터 최고 11점까지의 범위로 평균 9.5점이었다. 그리고 「인지적 발달을 위한 양육」은 최저 3점에서 부터 최고 11점 까지의 범위로 평균 11.6점이었다.

각 영역을 비교하기 쉽도록 총 문항수를 각각 100으로 기준하여 환산하면 조사대상 엄마들은 「영아들의 피로움에 대한 반응(90. 9)」을 가장 잘 하고 있었고, 다음은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한 양육(86. 4)」면이었으며 「지적 발달을 위한 양육

<표 2> 교육 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N=30

NCATS	평 균	표준편차	백 분 율*	범 위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	9.1	0.3	82.7	5-11
괴로움에 대한 반응	10.0	1.6	90.9	5-11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9.5	1.8	86.4	5-11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11.6	3.2	47.1	3-17
엄마의 총점	40.2	6.9	80.4	18-50
신호의 명확성	7.8	1.6	78	2-10
엄마에 대한 반응	6.9	2.7	53.1	2-12
영아의 총점	14.7	4.3	63.9	4-22

* 각 영역의 총문항수를 각각 100으로 기준했을 때 "예"의 총점

(47. 1)은 가장 잘하지 못하며 동시에 보통 이하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영아의 행동 총점은 14.7(만점 23)점이었으며, 이를 다시 영역별로 보았을 때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은 평균 7.8로 최저 2점에서 부터 최고 10점 만점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엄마에 대한 반응」은 평균 6.9(만점 13점)로 최저 2점에서 부터 최고 12점까지의 범위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결과를 미국의 서부지역에 있는 19개주 이상의 코카시안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NCAP결과 Barnard, 1978)와 비교했을 때 미국의 엄마나 영아들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괴로움에 대한 엄마의 반응」은 평균점수가 같았다.

교육상황을 보는 목적은 영아와 이복된 엄마의 의사소통 스타일을 관찰하는 것이다. 즉 교육시간 동안 영아의 신호와 욕구에 엄마가 민감한지?, 영아에게 긍정적인 회환(feedback)을 주는지? 영아의 자세나 과업재료를 적절히 제공하여 교육이 성공적이 되도록 즉각적인 환경을 마련해 주는지 등을 관찰한다.

교육할 때는 아이에게 분명한 지시를 하고 학습 동안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아이가 하고 있는 것에 관해 분명한 회환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행동은 후에 학교에서의 성취도와도 관련있다(Bee et al, 1969).

Bee 등(1969)이 사회계급과 교육패턴을 연구했을 때 중등도 사회계급 수준에서는 칭찬을 많이 하고 비평을 적게 했으며, 하위계급 수준에서는 칭

찬보다 비평을 많이 했다. 또한 중등도 계급에서는 질문형태로 암시를 주는 경우가 많았고 하위계급에서는 명령이 많고 신체적인 간섭이 많았다.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고리(loop)"라고 하여 (1) 각성시키고(엄마는 아이의 관심을 얻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이에게 말하며 과업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킨다.) (2) 지시를 하며(아이에게 교육시킨다.) (3) 수행하도록 하고(아이는 엄마의 암시나 교육에 반응하여 수행한다.) (4) 회환을 준다(엄마는 아이의 반응에 칭찬 등으로 다시 반응을 주거나 암시를 준다.). 이런 고리는 관찰의 핵심을 이룬다. Stewart와 Stewart(1973)는 모든 엄마들이 그런 고리를 사용하지 않음을 발견했다. 엄마의 교육스타일은 후에 아이의 지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전조가 되므로 중요하다.

본 연구를 위한 가정방문 중 교육시간 동안에 많은 엄마에게서 볼 수 있었던 점은 영아에게 교육시킨 후 물체를 탐구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영아에게서 물체를 뺏어 엄마와 똑같이 하기를 강요하고, 과업을 수행했을 때 칭찬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회환이 부족했던 점이며, 애기와 어떻게 놀고 무엇을 교육시킬지 모르고 있었던 점이다.

애기와 놀면서도 의도적인 교육놀이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은 물론 지적 발달도 빨리 되도록 이끌 수 있다.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을 엄마와 영아측으로 세분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아의 신호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

엄마는 교육을 시키기 전에 아기의 자세를 안전하게 지지하고 엄마를 볼 수 있도록 앉히며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아기의 주의를 끈 후 아기가 주목할 때 교육적 지시를 해야 한다.

애기가 과업을 성공했을 때 칭찬하며 계속 3회 이상 성공적이지 못할 때는 수행토록 강요하지 말고 애기나 물체의 위치에 변화를 주는 등 다시 시도해 보아야 한다.

2) 영아의 피로움에 대한 반응

애기가 짜증을 내거나 피로워 할 때는 교육시키는 일을 멈추고 긍정적이고 공감적이면서 부드러운 언어로 달래주고 쓰다듬어 주는 등의 피부접촉도 필요하다. 때로는 새로운 놀이감이나 게임으로 애기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기에게나 방문자에게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교육하는 동안 부모의 자세는 이완되어 있고 얼굴을 마주 보는 자세로 애기에게 미소와 웃음으로 대하며 가끔 쓰다듬어 주거나 애무하는 등의 신체적 접촉도 필요하다. 건설적이고 격려적인 말로 노력이나 행동에 칭찬한다.

4)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교육시는 주위환경이 산만하지 않도록 하며, 교육시간 중에는 애기의 관심에만 중점을 두고 시범을 보여준 후 그 과업에 쓰일 물체를 무담없이 만져 보도록 하고 인지발달을 위해 그 물체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분명한 지시와 함께 행동을 보여주고 교육시간은 1분 이하나 5분 이상은 효과가 없다.

5)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

교육하는 동안은 영아가 각성상태에 있어야 하고 교육상황에 대해 눈이 커지거나 자세에서 혹은 운동량이나 강도에 긴장과 변화가 있게 된다.

교육하는 동안 애기는 교육재료를 보고 목소리를 내거나 미소지으므로써 혹은 반대로 상을 찌푸리므로써 분명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6) 엄마에 대한 반응

엄마가 애기에게 각성상태에 있도록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보인 후 부모의 얼굴이나 과업물체를 응시하고 엄마와 눈맞춤이 이루어지며, 엄마가

눈맞춤을 시도하거나 말을 하면 거기에 반응한다. 엄마가 과업시도를 강요할 때 저항하거나 도전적인 반응을 보이고 엄마가 달래면 괴로운 행동을 멈춘다.

간호사는 이상과 같은 지식을 근거로 가정방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외래 방문 중에서도 교육상황 혹은 놀이에서 모아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즉각 사정하여 조언하브로서 그들의 발달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

2.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표 3>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초산모의 행동 총 점수는 37.9(만점 50)이며 최저점수 19에서부터 최고점수 50까지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를 다시 4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최저 8점부터 최고 16점 만점까지로 평균 11.9점이었고, 「영아의 피로움에 대한 반응」은 최저 5점에서부터 최고 11점 만점까지로 평균 9.8점이었으며,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은 최저 4점부터 최고 14점 만점까지로 평균 10.2점이었다. 또한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은 최저 2점부터 최고 9점 만점까지로 평균 5.9이었다.

이상의 4 영역을 비교하기 쉽도록 각 영역의 총문항수란 100으로 기준하여 환산해서 비교하면 교육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로움에 대한 반응」은 잘 하지만(90.9)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은 가장 저조(65.6)하였다. 그러나 4개 영역 모두가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은 평균 11.1점으로 최저 7점부터 최고 15점 만점까지의 범위였고 「엄마에 대한 반응」은 평균 6.8점으로 최저 0점으로 부터 최고 11점 만점까지의 범위였다. 또한 영아의 총점은 17.9(만점 26점)로서 2개 하위영역 모두가 보통이상(신호의 명확성 : 74.0, 엄마에 대한 반응 : 61.8)이었다. 엄마에 대해 반응이 전혀 없었던 경우는 수유 후 즉시 수면에 들어간 경우였었다.

본 연구결과를 NCAST 결과(Barnard, 1978)와 비교하면 「피로움에 대한 엄마의 반응」을 제외하

<표 3>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N=30

NCATS	평 균	표준편차	백 분 율*	범 위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	11.9	3.9	74.4	8-16
괴로움에 대한 반응	9.8	2.9	89.1	5-11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10.2	3.6	72.9	4-14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5.9	2.4	65.6	2-9
엄마의 총점	37.9	12.8	75.8	19-50
신호의 명확성	11.1	3.5	74.0	7-15
엄마에 대한 반응	6.8	3.1	61.8	0-11
영아의 총점	17.9	6.6	68.8	7-26

* 각 영역의 총문항수롤 100으로 기준했을 때 “예”의 총점

고 전 영역이 낮은 점수의 결과를 보였다.

한(1986)은 우리나라 엄마들이 수유시에 아이의 뚜렷한 울시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엄마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즉 애기는 신호를 보내지만 엄마는 그 신호를 명확히 받아 들이지 못하는 경우이다. 또 이어서 수유시 준비행동으로는 울음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각성상태는 가장 적었다고 보고하였다.

이(1987)는 수유시 모아의 상호작용 민감성 조사에서 보통인편(3.17, 만점:5)이라 하였다. 특히 영아의 활동상태에 대한 반응과 영아를 자극하는 스타일이나 영아의 포만상태에 대한 반응은 높았으나 영아가 엄마와의 눈맞춤이나 그의 발성상태는 낮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보통 이상으로(74.4) 한(1986)과는 차이를 보였으나 이(1987)와는 비슷하다고 사려된다.

이와 같은 모성예학의 상호작용적인 견해는 한쪽 사람의 행동이 다른쪽 사람에게 반응을 유발시키며 그것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전된다. 이런 과정에서 반응의 수정은 패턴으로 모양지어진다(Tulman, 1981).

하(1987)는 유희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엄마는 온화한 보살핌과 정서적 반응은 잘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이 보통 이상은 되지만 가장 잘하는 행위는 아

니었다.

모아의 수유상황은 모든 문화에서 공통된 것으로 그것은 쉽게 관찰되고 시작과 끝이 쉽게 확인되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상황은 생후 1일에 시작하여 1년 동안 지속되는 상호작용의 한 가지 유형이므로 모아상호작용 관찰에 중요한 것이다. 생후 1년간은 영아가 독자적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엄마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래서 두 사람간의 관계를 평가하는데 좋은 매체가 될 수 있다. 수유상황을 관찰하는 목적은 엄마와 아기가 서로 어디에서 의사소통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더욱이 간호사는 신생아실이나 병실에서 모자간의 의사소통 정도를 수유상황에서 관찰하고 사정할 수 있으며 조언할 수 있다.

다음은 모아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신호와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아의 신호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

부모가 자기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들의 행동을 적절히 수행하는 부모라면 영아가 보내는 신호(단서)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수유시키는 동안 엄마는 영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인 사람과 안전, 안락함, 자극 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즉 애기의 자세를 편안히 앉도록 하거나, 안고 먹이는 동안 눈과 눈맞춤을 하는 행위와 청각적인 자극, 모아간의 피부접촉 등으로 애기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 줄 수 있으며, 먹으려 할 때 잘 먹도록 도와주고 먹는 행위를 잠시 멈추고 쉬고자 할

<표 4-1> 교육상황에서의 영아 성별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NCATS	남		여		t값	df	P값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신호에 대한 민감성	8.9	0.5	9.1	0.3	-0.40	28	0.690
피로움에 대한 반응	9.8	0.4	10.1	0.4	-0.47	28	0.644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9.4	0.5	9.5	0.4	-0.13	28	0.901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11.3	0.9	11.9	0.8	-0.53	28	0.600
엄마의 총점	39.4	2.3	40.6	1.9	-0.46	28	0.646
신호의 명확성	7.9	0.3	7.7	0.4	0.42	28	0.681
부모에 대한 반응	7.3	0.8	6.7	0.6	0.57	28	0.574
영아의 총점	15.2	1.1	14.4	1.0	-0.12	28	0.903

때 설 수 있는 여유도 아기에게는 필요하다.

2) 피로움에 대한 반응

아기가 몸이 불편해 하거나 피로워 할 때 수유시키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자세를 다시 고쳐서 편안하게 해주거나 긍정적이고 동정적인 말을 해주며 보다 부드럽고 높은 목소리로 변화를 주어 아기에게 반응한다.

언어적인 노력이의 비언어적으로 몸을 쓰다듬어 주고 놀이감을 주거나 같이 놀아주어 아기의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다. 아기에게 고통을 지르며 야단치지 않고 거칠게 다루지 않는 행위도 필요하다.

3) 사회-정서적인 성장을 위한 양육

수유시키는 동안 방문객이나 주위에 관심을 두기 보다 아기에게 더 관심을 두고 아기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맞춤의 시간을 갖으며 아기를 칭찬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며, 아기를 보면서 미소짓고 부드럽게 몸을 만져줄 수 있다.

수유동안에 아기에게 비웃지 않고 아기나 아기의 행동에 관해 아기나 방문객에게 부정적이거나 도움이 못 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4)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아기가 손에 쥐고 먹거나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제공하고 수유 중에도 젖병이나 그릇 음식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또한 수유상황에 관해 말을 하면서 명령보다는 아기에게 질문을 하거나 서술하는 말로 부드럽게 얘기한다. 아기가 웅얼이나 어떤 음성을 낼 때 즉각적인 반응으로 답을 줄 수 있다.

5)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

아기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긴장해서 맛있게 먹으며 얼마 후에는 그 긴장이 풀어지게 된다.

아기는 젖을 세게 빠는 시기와 휴식을 하는 비활동기가 있다. 즉 8~10초 빨고 3~5초 중지한다. 또한 만족스러운 관계에서는 팔·다리의 움직임이 부모를 향하고 있고, 부모의 눈맞춤이나 얼굴맞춤이 있게 되며, 때로는 먹으면서 웅얼이나 미소를 짓는다. 싫을 때는 젖꼭지를 빼거나 돌려 버리고 준 음식을 거칠하게 된다. 수유가 끝나면 만족감을 표시하고 근긴장이 저하되며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한다.

6) 부모에 대한 반응

아기는 부모가 주는 수유에 대해 반응한다. 즉 먹이기 전 혹은 먹이는 중에 언어로, 비언어로 완전히 깨어 있도록 한 후 엄마의 얼굴을 쳐다 보기도 하고, 웅얼이런 한다.

부모를 알리고 엄마의 얼굴이나 혹은 젖가슴을 만지기도 한다. 또한 부모의 얼굴이 아기와 20cm 이내로 가깝게 움직이면 얼굴을 피하거나 눈을 감아 반응하기도 한다. 만족스러운 관계에서는 수유 중간쯤 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부모를 응시한다.

3. 대상자의 특성과 모아상호작용과의 관계

1) 영아의 성별과 모아상호작용

① 교육상황

<표4-1>과 같이 교육상황에서 영아의 성별에 따라 엄마의 행동수준의 차이를 볼 때 $P < 0.5$

<표 4-2> 수유상황에서의 영아 성별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NCATS	남		여		t값	df	P값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신호에 대한 민감성	11.4	1.1	12.1	0.9	-0.51	28	0.615
피로움에 대한 반응	9.3	1.0	10.0	0.6	-0.65	28	0.520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10.1	1.1	10.2	0.8	-0.08	28	0.936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6.0	0.7	5.7	0.5	0.25	28	0.805
엄마의 총점	36.8	3.9	38.0	2.8	-0.31	28	0.762
신호의 명확성	10.5	1.0	11.4	0.8	-0.66	28	0.517
부모에 대한 반응	7.4	0.9	6.3	0.6	0.95	28	0.351
영아의 총점	17.9	1.9	17.7	1.4	-0.23	28	0.818

<표 5-1> 교육상황에서의 아버지 학력별 모아상호작용

NCATS	고졸(N=2)		대졸 이상(N=8)		t값	df	P값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신호에 대한 민감성	8.1	0.5	9.6	0.2	-2.71	28	0.011*
피로움에 대한 반응	9.5	0.5	10.3	0.2	-1.45	28	0.159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8.7	0.4	9.9	0.4	-1.91	28	0.067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10.2	0.9	12.5	0.6	-2.04	28	0.050*
엄마의 총점	36.5	2.3	42.3	1.4	-2.36	28	0.025*
신호의 명확성	7.9	0.3	7.6	0.4	0.42	28	0.681
부모에 대한 반응	6.2	0.6	7.3	0.7	-1.07	28	0.293
영아의 총점	14.1	0.9	14.9	1.1	-0.61	28	0.549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평균점수 비교에서 남아보다 여아에게 관심있는 행동을 더 보여 주었다. 그리고 영아의 행동수준의 차이를 그들의 성별로 비교했을 때 역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들의 평균점수 비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엄마에게 신호를 명확히 보내고 엄마에 대해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수유상황

엄마를 대상으로 수유상황에서 영아의 성별로 행동수준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그들의 성별로 차이를 보았을 때도 역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표 4-2 참조).

2)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① 교육상황

교육상황에서 아버지의 학력정도에 따른 조사대상 엄마들의 행동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6, df=28, P=0.025). 특히 「영아의 신호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t=-2.71, df=28, P=0.011)과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t=-2.04, df=28, P=0.050) 면에서 통계적인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서 고졸군보다 대졸군 이상에서 더 높은 행동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 영아의 행동은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

③ 수유상황

수유상황에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엄마를 대상으로 한 그들의 행동은 <표 5-2>에서와 같이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영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5-2> 수유상황에서의 아버지 학력별 모아상호작용

NCAFS	고졸(N=12)		대졸 이상(N=18)		t값	df	P값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신호에 대한 민감성	12.2	0.6	11.6	1.1	0.49	25.92	0.626
피로움에 대한 반응	10.4	0.4	9.3	0.8	1.12	26.24	0.273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10.4	0.7	10.1	1.0	0.22	28.0	0.826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5.9	0.5	5.8	0.6	0.09	28.0	0.926
엄마의 총점	38.9	2.2	36.8	3.5	0.55	24.54	0.587
신호의 명확성	12.0	0.5	10.4	0.9	1.45	25.94	0.159
부모에 대한 반응	6.6	0.6	6.8	0.8	-0.14	28.0	0.887
영아의 총점	18.6	1.1	17.2	1.7	0.72	27.05	0.475

<표 6-1> 교육상황에서의 엄마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NCATS	고졸(N=12)		대졸 이상(N=18)		t값	df	P값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신호에 대한 민감성	8.3	0.4	9.8	0.2	-2.73	28	0.011*
피로움에 대한 반응	9.5	0.4	10.5	0.2	-1.75	22.5	0.094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8.6	0.4	10.4	0.2	-3.40	19.8	0.003*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10.3	0.9	13.1	0.4	-2.79	22.2	0.011*
엄마의 총점	36.7	2.1	43.8	1.0	-3.23	20.1	0.004*
신호의 명확성	7.6	0.4	7.8	0.3	-0.29	28	0.776
부모에 대한 반응	6.8	0.6	7.0	0.8	-1.19	28	0.854
영아의 총점	14.4	1.0	14.8	1.1	-0.26	28	0.794

* P<0.05

3)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아상호작용

① 교육상황

교육상황에서 조사대상 엄마의 교육수준에 따라 그들의 행동에는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3, df=20.1, P=0.004$) <표 6-1>.

즉 「영아의 신호에 대한 엄마의 민감성」($t=-2.73, df=28, P=0.011$)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t=-3.40, df=19.8, P=0.003$) 및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t=-2.79, df=22.2, P=0.011$)면은 고졸군의 엄마보다 대졸 이상군의 엄마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피로움에 대한 반응」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점수에서는 대졸 이상군의 엄마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리고 조사대상 영아의 행동에서는 엄마의 학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NCAST(1978)의 연구결과는 엄마의 교육에 따

른 모아상호작용의 차이는 분명하여 대졸 이상군이 가장 높고 다음은 고졸군, 고졸 이하군의 순을 보여주어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에 엄마의 학력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② 수유상황

수유상황에서 엄마를 대상으로 그들의 교육수준에 따른 행동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조사대상 영아의 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2>.

그러나 NCAST(1978)의 연구결과에서는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 「피로움에 대한 반응」,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의 4가지 영역 모두에서 대졸 학력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고졸 이하군이 가장 낮았다. 영아측의 「신호의 명확성」과 「부모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표 6-2> 수유상황에서의 엄마의 교육정도별 모아상호작용

NCAFS	고		대졸 이상		t값	df	P값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신호에 대한 민감성	11.8	0.5	11.9	1.4	-0.08	17.2	0.940
괴로움에 대한 반응	10.4	0.3	9.0	1.0	1.29	16.5	0.216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	10.3	0.7	10.1	1.1	0.13	28	0.901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	5.6	0.4	6.1	0.7	-0.59	28	0.558
엄마의 총점	38.1	1.9	37.1	4.2	0.21	16.8	0.834
신호의 명확성	7.6	0.5	10.5	1.2	0.84	17.9	0.412
부모에 대한 반응	6.4	0.6	7.1	0.9	-0.62	28	0.538
영아의 총점	14.0	1.1	17.6	2.1	0.18	19.66	0.859

V. 결 론

엄마의 교육상황과 수유상황에서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본 연구는 서울 시내 3개 종합병원에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파력을 가진 건강한 초산모와 만삭으로 출생한 생후 9개월 된 영아 30쌍을 대상으로 1989년 8월 27일 부터 1990년 2월 26일까지 6개월에 걸쳐 조사 실시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Kathryn Barnard의 Nursing child Assessment Feeding Scale(NCAFS)과 Nursing child Assessment Teaching Scale(NCATS)을 이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이분문항이며 “예”의 총점이 높을수록 모아상호작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가정을 연구보조원 1인과 함께 방문하여 교육상황과 수유상황을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시행토록 하면서 연구보조원은 비디오촬영하고 연구자는 그 상황을 관찰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는 재분석 평정하여 그 결과를 spss package로 전산처리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특성은 백분율로, 수유상황과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대상자의 일반 특성별 모아상호작용의 차이 검정 은 t-검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조사대상 엄마의 행동 총점은 40.2(만점 50점) 이었고, 세분된 4개 영역 중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평균 9.1(만점 11점)이었으며, 「괴로움

에 대한 반응」은 평균 10.0(만점 11점)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은 평균 11.6(만점 17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가장 낮았다.

또한 조사대상 영아의 행동 총점은 14.7(만점 26점)이었고, 세분된 2개 영역 중 「영아의 신호의 명확성」은 평균 7.8(만점 10점)이었으며, 「엄마에 대한 반응」은 평균 6.9(만점 13점)로 평균 이상이었다.

2. 수유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조사대상 엄마의 행동의 총점은 37.9(만점 50 점)이었고, 세분된 4가지 영역 중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은 평균 11.87(만점 16점)이었으며, 「괴로움에 대한 반응」은 평균 9.87(만점 11점)이었다.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은 평균 10.2(만점 14점)이었고,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은 평균 5.9(만점 9점)로 모든 영역이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영아의 행동 총점은 17.9(만점 26점)이었고, 세분된 영역 중 「신호의 명확성」은 평균 11.1(만점 15점)이었으며, 「엄마에 대한 반응」은 평균 6.9(만점 11점)로 역시 보통 이상이었다.

3. 에기의 성별과 교육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은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유상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교육상황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모아상호작용은 조사대상 엄마의 행동점수는 아버지가 대졸인 경우에 있어서 고졸인 경우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6$, $df=28$, $P=0.025$). 엄마측의 행동영역 중 「영아의 신호에 대한 민감성」($t=-2.71$, $df=28$, $P=0.011$)과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t=-2.04$, $df=28$, $P=0.050$)의 면에서 아버지가 대졸 이상군인 경우 고졸군 보다 점수가 더 높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사대상 영아는 아버지의 학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수유상황에서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은 엄마측에서나 영아측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교육상황에서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엄마측의 행동점수에 있어 대졸 이상군의 점수가 고졸군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t=-3.23$, $df=20.1$, $P=0.004$). 엄마측의 4가지 세부영역 중 「신호에 대한 민감성」($t=-2.73$, $df=28$, $P=0.011$)과 「사회-정서적 성장을 위한 양육」($t=-3.40$, $df=19.8$, $P=0.003$) 및 「인지적 성장을 위한 양육」($t=-2.79$, $df=22.2$, $P=0.011$)에 있어서 학력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영아측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수유상황에서 엄마의 학력수준에 따른 모아 상호작용은 엄마측 행동에서나, 영아측의 행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는 영아가 의존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가능성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엄마와 영아 상호간에 자극을 주고 받아 욕구해결은 물론 미래의 성장발달을 위해 수정해 가면서 노력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옆에서 간호사는 그 상황을 즉각 사정하여 양자를 조력토록 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우리나라 엄마와 영아 두 사람간의 교육패턴과 수유패턴을 살펴본다.
2.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영아의 이론 연령층에서 부터 아동기에 이르기 까지의 연령별 비교와 함께 그들의 변화양상을 살펴본다.
3. 어머니와의 분리기간에 따른 모아상호작용을 살펴본다.

4. 비정상아와 정상아를 비교한다.

참 고 문 헌

- 이은숙(1987) 초산모의 엄마역활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영수(1987) 모아의 유희적 상호작용 행동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 26(5) pp. 43-68.
- 한경자(1986) 한국인 영아초기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행동형태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arnard K, (197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feeding and teaching scales.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pp. 150-167.
- Bee, Helen L, Van Egeren, Lawrence F. Steissguth, Ann Pytkowicz, Nymen, Barry A., and Leckie, Maxine S.(1969):Social class differences in maternal teaching strategies and speech patterns, *Developmental Psychology* 1 : 726-734.
- Brazelton T., Koslowki Barbara, and Main, Mary (1974):The origin of reciprocity:"The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In M. Lewis and L. Rosenblum(Eds) *The effect of the Infant on its caregiver* New York, John Wiley and sonn. p. 59. Cited from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p. 48.
- Green J.A., Gustafson G.E., and West M.J., (1980). "Effects of Infant Development on Mother-Infant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51 : 199-207.
- Harris, E.S., Weston D.R., Lieberman A.F(1989) : Quality of Mother Infant Attachment and Pediatric Health care use. *Pediatrics*, Aug: 84 (2). pp. 248-54.
- Martin, Myla and Gray, Carol Ann. "Neonatal Behavioral Capacities and Mother Infant Interactions in Term and Premature Infants" Paper Presented at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1 : 199-207.

- Mercer R.T., (1986): *First-Time motherhood-Experiences from tens to forties*. Springer publishing Co., p. 201.
- NCAST(1978),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 learning resource manual.
- Robson K.S. and Moss H.A.(1970) : Pattern and determinants of maternal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s*, 77, 966—985.
- Rubin(1964) : Maternity Care in our Society, *Nursing Outlook* 11 : 519.
- Sander L.W., (1964) : Adaptive relations in early Mother-Child interaction. *American Academy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 pp, 231—264.
- Sarale E. Cohen, Leila Beckwith, Arthur H. Parmelee(1978) : Receptive language development in preterm childrens as related to caregiver-child interaction, *Pediatrics* 61(1) pp. 16—20.
- Snyder C., Tyres S., Barnard K.(1979), New findings about mother's antenatal expecta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infant development, *Maternal child nursing* 4(6), cited from Nursing child Assessment Satellite Training(NCAST) learning resource manual(1978) p. 185.
- Stewart David and Stewart Margaret(1973) "The observations of Anglo-Mexican and Chinese-American mothers teaching their young sons" *Child Development* 44 : —329—337.
- Thomas A., and Chess S.(1977) :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Magel Publishers, New-York, pp. 66—91.
- Tulman S.J.(1981), Theories of Maternal Attachment, *Advances in Nursing science* 3(4), pp, 7—14.
- Wachs T.D. and Gruen, G(1984) "Environmental Stimulation and early intervention," *Zero to three* 5(2) pp, 6—10.

<ABSTRACT>

A study on the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eaching and feeding situation

Kyoul-Ja Cho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nursing intervention in infant teaching and feeding situation.

The subjects were 30 pairs of mother and her infant(9 month) who were normally delivered at 3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area.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by observation using videotaperecord from September 27, 1989 to February 26, 1990 in their home.

The measurement tools used by this researcher were Nursing child Assessment Teaching scale (NCATS) and Nursing child Assessment Feeding Scale(NCAFS) which was developed by Barnard. The higher sum of "yes" score means the higher mother-infant interaction level.

Mother-Infant interaction behaviors in both situation were based on 6 subcategories; sensitivity to cue, response to distress,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cognitive growth fostering, clarity of cues, and responsiveness to parent.

The data collected through above method were analyzed by mean and t-test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sum of maternal behavior score was 40.2 out of 50.0 in teaching situation and 37.9 out of 50.0 in feeding situation.

Out of the 4 subcategories on maternal behavior in both situation, the highest subcategory was shown by response to infant's distress and the lowest subcategory by cognitive growth fostering.

2. The sum of infant behavior score was 14.7 out of 23 in teaching situation and 17.9 out of 26 in feeding situation.

Out of the 2 categories on infant behavior in both situation, the highest sub category was shown by the clarity of infant's cue in both situation.

3.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father's educational level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teaching situation; college group was higher than high school group, particularly in category of sensitivity to infant's cue and cognitive growth fostering.

4.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eaching situation between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college group was higher than high school group, particularly sensitivity to infant cue, social-emotional growth fostering and cognitive fostering.

5.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in between parent educational level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in feeding situation.